

국내기업, 환경오염 ‘나 몰라라’

환경부, 환경오염기업 단속결과 발표 … 291개 기업 고발조치 당해

2001년 6월 실시된 환경오염기업 단속 결과, 총 291개 기업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등으로 고발조치 당했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전국 각 시·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원 18,560명을 동원해 총 10,456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, 단속 기업수 1만456개의 8.4%에 달하는 8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의법·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.

무허가(미신고)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(주)오뚜기삼남공장, 영창섬유, 유성기업, (주)영동공장 등 291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했으며,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중공업(주), 두립제지(주), (주)한창제지 등 202개 사업장은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.

특히, (주)홍일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부상조의 고장으로 행정관청에 자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심야에 2차에 걸쳐 폐수 44m³을 집수조에서 폭기조 등을 경유하지 않고 최종 침전조로 직접 유입·방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당했다.

1.적발기업 현황

(단위:기업수)

단 속 기업수	위 반 기업수 (위반율)	위 반 내 역				조 치 내 용					
		배출허용 기준초과	방지시설 비정상가 동	무허가	기 타	개 선 명 령	조 업 정 지	사 용 중 지	폐 쇄 명 령	경고등 기 타	고 발 (병과)
10,456	877 (8.4%)	202	99	284	292	196	83	162	132	286	291 (273)

+고발 291개소 중 273개소는 행정처분 병과